

##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6.23)

- 지금부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,
  - 새정부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경, 새정부 경제정책방향, 민생·물가안정 대책,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노력과 함께,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,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-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이 없이도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,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.

### [ ① 노동시장 개혁 ]

- 정부는 지난 6.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·노동·교육·금융·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
  - 오늘은 5대 부문 구조개혁 중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합니다.
- 최근 고도화·다변화된 경제·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,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매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.

-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.
-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·양극화·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,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며,
-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,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.
-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잠시후 별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
## [ ② 경제 규제혁신 ]

- 다음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 관련입니다.
-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·기업·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- 물론,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시다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.
- 이제 새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,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하여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합니다.

- 이를 위해,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 들께서 참여하는 「경제 규제혁신 TF」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,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우선,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, 민간이 규제 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습니다.
- 또한,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·운영할 계획입니다.
- TF는 ①현장애로, ②환경, ③보건·의료, ④신산업, ⑤입지규제와 함께 ⑥인증제도, ⑦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입니다.
-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.
-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·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-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.
-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/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,
-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\*를 보이고 있습니다.

\* 주요국 통화 절상률(% 21말 대비): (韓)△8.4 (유로)△7.6 (英)△9.6 (日)△15.6 (美)+9.5

-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안정노력을 실시하는 한편, 시장 內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
- 그럼 지금부터 고용부 장관님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.  
(고용부 장관 모두발언)
-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